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

장부미 · 전철기 · 손홍 · 진병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bmkang@tta.or.kr · ironage@tta.or.kr · hsohn@tta.or.kr · bmchin@tta.or.kr

A Suggest for Improvement of Organic System of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oo Mi, Kang · Chul-Ki, Jun · Hong Sohn · Byoung-Moon, Ch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요약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대상은 다양하지만,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는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의 양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산업표준은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표준은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민간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와 통신 및 기술이 융합되어 가는 추세에 양 체계간의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서로간에 이해다툼과 업무중복 등 억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의 표준화 추진체계를 조직적 측면에서 검토·분석하여,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바람직한 표준화 추진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 머리말

일반적으로 표준이라 함은 물건·개념·방법·절차 등에 관해 통일화·단순화한 규정으로 일종의 약속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무질서 내지 다양화됨으로 인하여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장애 내지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편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인들간의 공정한 이익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물건·개념·방법·절차 등을 의식적·조직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그것을 최대한 통일화·단순화시킨 규정, 즉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란 이러한 의미의 표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1]

특히 최근에 통신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표준은 자국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선진기술의 조기도입, 선행표준의 연구와 개발, 시의적절한 적용 및 시장선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준으로 인하여 제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도 이점이 된다. 이러한 필요성 내지 효과로 인하여 표준은 국가간 무역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전쟁수단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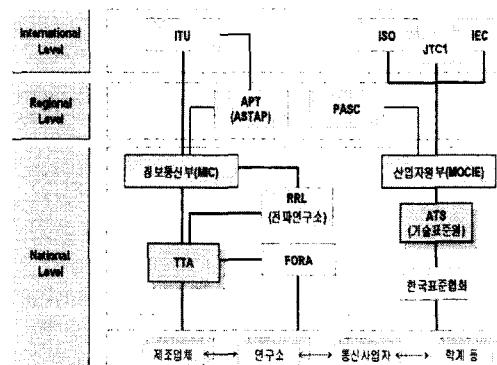
즉, 표준화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준화를 통한 기술강국의 실현과 국가발전에의 기여이며, 따라서 우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IT 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표준화 추진체계는 크게 산업표준화와 정보통신표준화의 양대 지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양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간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각 조직별 별도의 소관 법률을 제정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표준정책의 수립, 부처간 조정 및 대책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하에서는 국제선도적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표준화 체계를 조직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정부주도로 전개되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현 산업표준) 위주로 추진되었다.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1952년 우리나라가 ITU에 가입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89년 민간차원의 정보통신 표준제정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립되면서 비로서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3]

따라서 현재 표준화 대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의 양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